

국제경쟁력과 기업

현실적이고 미시적인 과제는 국민, 기업, 정부, 교육계 등 모두가 “세계와 경쟁하는” 태세를 갖추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고의 판단기준을 세계로 넓혀가야만 합니다. 기업은 국력 그 자체가 경제력을 원천으로 한다는 인식 하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영세기업에 이르기까지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평소 존경하는 학장님들과 학계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또한 이같은 소중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과학 기술 발전과 인재육성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풀어가시느라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해외시장과 세계경제의 흐름을 체감하는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환경에 대처하여 기업이 해야 할 역할과 기술의 국제화를 위해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만남이 제 생각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의 흐름, 국제화

지금 세계는 한마디로 생존경쟁의 시대임



니다. 지난날 '국가' 라고 할 때 연상되는 대표적인 단어는 대체로 국경과 이념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이러한 개념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오늘날을 상징하는 어휘는 '경제'와 '생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유일한 관심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국의 경쟁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경제적 실리아말로 각국 지도자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국이 추구하는 국가이익의 개념도 과거의 정치·군사적 의미에서 경제문제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세계화' 또는 '국제화'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계는 하나'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다소 낭만적 뉘앙스가 풍기는 의미가 아니라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화는 지역경제권에 기반을 둔 지역화의 개념, 즉 Block Economy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미·소 두 강대국의 냉전체제 속에서 유럽 12개국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이에 대항하기 위해 관세동맹을 맺은 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화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관세동맹은 공동시장을 거쳐 경제연합의 단계에까지 발전하였는데 이것이 현재의 EU(Europe Union)라는 지역블록체제입니다.

미국은 이런 유럽의 지역화에 자극을 받아 NAFTA라는 북미권 지역경제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3개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을 시발로 하여 중미, 남미를 포괄하는 지역경제권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지구촌을 크게 조감해 볼 때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을 제외한 거대

한 두 지역경제가 탄생한 셈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경제체제들은 역내국가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지만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개의 거대한 블록에 편입되지 못한 나라들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 중·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잘사는 나라들은 블록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도 더 잘살 수 있는 틀을 마련한 반면 못사는 나라들은 그러한 틀도 짜지 못했기 때문에 이른바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남북격차는 더욱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블록 밖에 놓여진 나라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얼마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국제수지와 재정에서 막대한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미국이 방위산업, 농산물, 서서비스, 금융 등 비교적 자신있는 비교우위산업에 대해 다른나라의 시장개방을 요구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골적인 국가 경제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UR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수퍼 301조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들먹이는 까닭도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화의 기저에는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 경제권간의 침해한 힘의 대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지역경제화와 지역경제권간의 대립은 향후에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세계흐름의 변화는 수출을 위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해외시장 전략을 추진해야 할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세계의 변화를 직시하고 경제력에 바탕을 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적 컨센서스를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대우의 세계 경영

저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의 활로는 국제화임을 강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지역경제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계화 전략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국가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거시적 전략은 결국 우리가 EU, NAFTA 등에 맞서 어떤 대응책을 수립하느냐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미국을 포함한 APEC을 통한 참여전략을 생각할 수도 있으며, 미국을 배제한 별도의 아시아 국가의 연합을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의 참여문제와 함께 중국의 이니셔티브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아시아블록의 태동을 전제로 한 남북 통일문제를 전략적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현실적이고 미시적인 과제는 국민, 기업, 정부, 교육계 등 모두가 "세계와 경쟁하는" 태세를 갖추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고의 판단기준을 세계로 넓혀가야만 합니다.

이는 경제의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기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력 그 자체가 경제력을 원천으로 한다는 인식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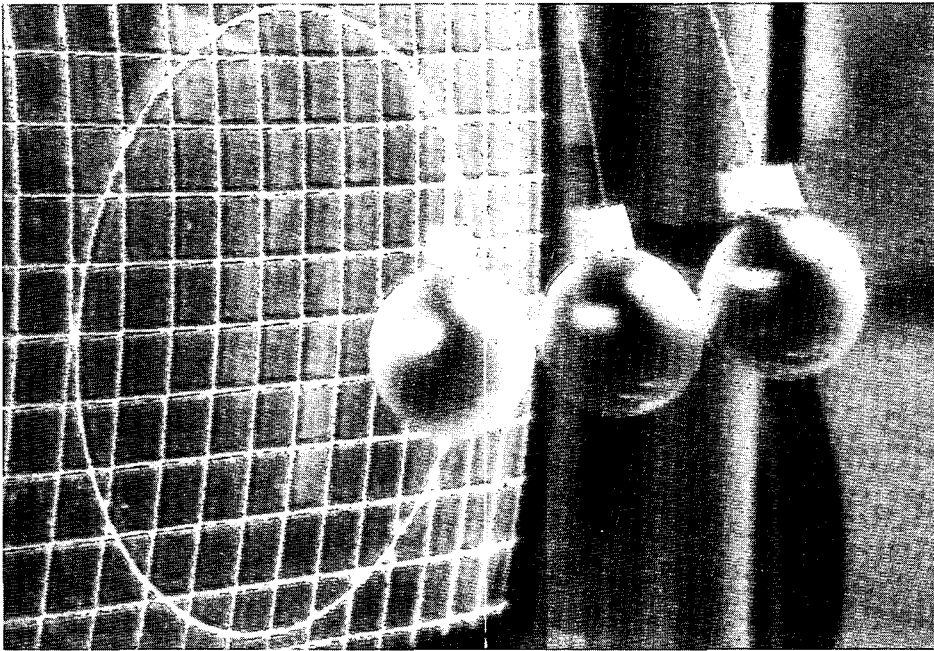
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영세기업에 이르기까지 상품과 서어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국제화 전략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상품을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바로 선진국입니다. 그들은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이기도 합니다.

대우는 '67년 창업 이래 해외와의 경쟁을 통해 단 27년만에 세계 41위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대우가족 모두는 항상 우리의 경쟁자는 세계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어 본 적이 없으며 좁은 국내시장보다는 넓은 해외에서 성장의 에너지를 취해 왔습니다.

창업부터 시작된 대우의 세계화전략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우의 세계경영 전략입니다. 대우의 세계경영 전략의 기본원칙은 "대우의 상품을 세계인이 함께 만들고 세계인이 함께 쓰며 세계기업들과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상품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가 표방하는 세계경영 전략의 근본되는 핵심은 더욱 심화될 블록경제에 대처하지는 것입니다. 블록체제가 일단 굳어지면 한국에서 제아무리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EU나 NAFTA 블록을 뚫고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 점을 저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해 왔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일년의 절반 이상을 해외로 뛰어들었던 것입



니다.

그 결과 대우는 현재 전세계 100여개국에 국내 어느 기업보다 많은 200여개의 현지 지사와 거점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대우의 현지법인들은 단순한 생산거점이 아니라 판매, 금융, 서어비스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연구, 기술 개발까지도 현지에서 자체 해결하는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외형적 확대와 함께 세계경영 전략의 성과는 경쟁력 있는 상품의 개발을 통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시작된 '고장없는 제품, 튼튼한 상품을 만든다'는 대우전자의 탱크주의는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세계에 널리 알려져 그 성과를 상품판매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우전자의 대표적인 상품인 공기방울세탁기는 국내시장의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 그리고 유럽시장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창업부터 시작된 대우의 세계화전략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계경영전략입니다.
세계경영 전략의 기본원칙은 "대우의 상품을 세계인이 함께 만들고 세계인이 함께 쓰며 세계기업들과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상품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룬위공장에서 생산하는 전자렌지가 현지에서 Market Share 30%라는 외국기업으로서는 경이적인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임팩트 TV를 프랑스에서 생산하여 유럽 전역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TV의 경우 향후 연간 100만대 수준으로 생산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특히 생산의 현지비용을 높이기 위해 2억달러를 투자하여 브라온관 공장까지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VCR의 경우

그동안 영국에서 연간 50만대를 생산하여 유럽 시장에 공급하여 왔습니다만 이체는 생산량을 두배로 늘려 100만대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동구의 루마니아에서는 냉장고를 생산하기 위하여 루마니아 현지공장의 지분을 51% 인수하였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냉장고는 서유럽을 포함하여 유럽 전역에 공급 될 것입니다. 또한 멕시코의 컬러 TV공장은 현재 연 100만대를 생산하여 북미와 남미 지역까지 공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우전자는 이같은 경쟁력있는 상품을 바탕으로 미얀마, 베트남, 중국 등지에까지 현지 생산공장을 세우고 현재 순조롭게 생산·판매하고 있는 등 세계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의 세계경영은 '국내 100만대, 해외 100만대 생산체제 구축'이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을 완료하여 공장건설에 착수하였거나 계약이 성사단계에 있는 자동차 현지공장의 총 생산대수는 105만대에 달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즈베크공화국에서는 20만대 규모의 국민차 생산공장이 이미 가동했는가 하면 루마니아에도 20만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으며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지에 자동차 공장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입니다.

또한 거대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15만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도에는 15만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베트남, 필리핀, 대만, 태국, 파키스탄 등지에도 자동차 공장 건설에 착수하였거나 조만간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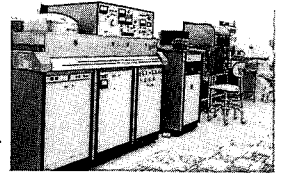
리비아를 거점으로 각각 5만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추진함으로써 대우자동차는 96년까지 국내 100만대, 해외 1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우자동차는 총 200만대를 생산하는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 메이커로 성장할 것이며 지난해 대우그룹 전체 매출액 340억 달러와 맞먹는 300억 달러 규모의 세계적인 회사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대우에서 전자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블록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경제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지역경제권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내로 고부가가치의 연관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루마니아 등지의 전자제품 공장과 자동차 공장은 블록화된 유럽시장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등지로 생산거점을 확충하는 것은 미국 시장과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것이며 우즈베크공화국의 전자와 자동차 공장은 중앙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교두보입니다. 또한 중국, 인도,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등지의 생산기지는 진출 대상국가의 자체시장은 물론 아시아 시장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선진기술을 개발하고 제품 및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단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 및 판매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까지도 현지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지에 연구소를 운영



함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기술의 국제화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회 대우의 활발한 '세계경영' 전략이 성공하고 우리기업들이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고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최고의 제품은 최고의 기술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기술을 가진 인력을 육성하는 일은 세계화 전략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인력의 핵심을 이루는 고급두뇌의 75%를 대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기업이 대학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그 첫번째는 기술인력의 공급이며, 연구 성과물을 제공받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점에서 지금까지 기업과 대학간에는 상당부분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산학협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이유인 동시에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기술인력의 공급을 볼 때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에서 배출한 학생들은 막상 사회에 진출하면 예외없이 재교육을 받거나 현장 적응기간을 거쳐야 하는 형편입니다. 학교의 이론중심적인 교과과정은 기업이 요구하는 실용성을 갖추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재교육이라는 새로운 생산 코스트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기업과 대학간의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대학은

특정한 과학기술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제품 생산에 관한 기본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술연구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연구결과를 생산에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임무라고 인식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연구결과가 제품생산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이러한 인식의 격차를 하루속히 없애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대학의 역할에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기초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기반이 없으면 우리의 상품기술 역시 한계에 다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품기술은 선진국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발전했습니다만 기초과학수준은 아직 매우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기업이 비싼 로열티를 물면서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도 우리의 기초과학의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도입의 결과, 부품과 장비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진 것 역시 사실입니다.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대일 무역수지 적자도 근본적으로는 기초과학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소련이나 중국, 체코 등과 같은 국가는 지금 비록 상품기술이 부족하지만 기초과학은 선진국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러한 기초과학에 상품기술을 접목시킬 경우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기초과학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으로

**기업이 대학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그 첫번째는 기술인력의 공급이며, 연구 성과물을
 제공받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점에서 지금까지 기업과 대학
 간에는 상당부분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산학협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이유인 동시에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한국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초과학에 대해 특히 관심을 쏟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초과학이 기반을 다진다면 기업과 대학이 연계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상품의 개발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술의 국제화와 우리의 자세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기술을 얻기 위해, 우리는 현재의 기술투자에 대한 시각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구한말 우리의 선조들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빨리 전기(電氣)를 도입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히 읽었던 선각자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을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의 기술을 돌이켜 보면 심각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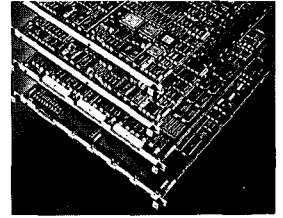
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측면에 있어서 폐쇄적인 민족성을 견지해 왔기에 이러한 현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고려자기를 만드는 비법이 단절된 것도 역시 이러한 폐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폐쇄성에서 탈피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은 선진기술을 복사, 수정, 보완하는 정도를 약간 넘어선 정도이며 독자적인 기술개발, 세계에서 제일가는 고유기술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기술에 대해 미시여구를 동원한 과대포장을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이같은 절박한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과의 기술 수준을 좁히기 위해서 성실에 바탕을 둔 근면성이 가장 급선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선진국 기술의 외양과 화려한 환경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강한 듯 합니다. 선진국들이 수백년, 수십년 동안 끊임없는 연구결과로 축적한 기술수준을 따라 잡고 이를 단시간 내에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며 과시와 걸치레는 더욱더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 일각에서는 마치 적게 일하고 많이 노는 것이 선진화된 스타일로 착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류의 주장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일하기 싫어한다는 점에서 성인과 속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싫어한다는 본성을 누르고 열심히 일하면 성인이 되는



것이고 본성에 자신을 내맡기면 속인의 지위에 머물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성인은 드물고 속인이 많은 법이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노는 것이 멋있고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사회에 퍼져 나간다면 이런 생각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속인들의 인기에는 영합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기술은 끊임없는 실험과 분석,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과정에서 꽃피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피와 눈물속에 자란 헌성이 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오로지 사명감 있는 과학기술자라야 피워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우리기술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사회나 한 시대의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기본 요건은 자기 희생입니다. 저는 3년전 대우조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옥포현장에서 1년반을 지낸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깨달은 사실은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지 않고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의 협조와 동참도 바랄 수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평 대우자동차에 상주하면서 거의 매일 자정이 넘도록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단 1분, 1초라도 현장을 떠나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으며 기능인력, 연구인력들과 현재의 문제와 미래에 대해 같이 토론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

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의 일부는 노동의 원초적 개념인 인간의 노력이 구시대의 유물로 변해가고 있으며 시설과 환경 그리고 설비의 자동화만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첨단 기자재와 설비도 인간이 운영하고 작동함으로써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뿐이며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로 나가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앞서지는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과학기술계에서도 세계 속의 우리를 인식하고 우리의 정직한 기술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희생하는 집단, 희생을 감내하는 세대가 나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린 까닭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우리 기술에 달려 있으며, 그 기술은 결국 이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에 의해 양성된 기술인력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철학이 길게 보아 21세기 한국의 과학기술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제화의 격랑을 헤쳐 가고 있는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모쪼록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얘기가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